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라고 하시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14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요3:16 말씀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원래의 본 모습은 멸망하게 되어있다, 지옥에 가게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9)"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처방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봐야 낫는다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그 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뱀에 물려 다 죽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처방이기에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있고 또한 그 곳에 들어갈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눈 앞에 어려움도 함께 찾아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2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걷는 동안이란 의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현실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암울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수록 에돔, 아랏, 아모리, 바산, 모압, 암몬 등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진짜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민족들은 모두 강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모리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의 경우에는 당시에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본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거인들의 후예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현재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등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망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없는 반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뱀에 물려 죽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 전에라도 우리 몸에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도 아예 병원에 가지 않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안다며 치료받기를 거부하면 그 병에서 낳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 때문에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처방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과 쳐다보지 않다가 죽은 사람과 똑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고후4:4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엡4:18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고후11:3). 또한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쉬운 민족도 있는 반면 강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2장부터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인 브올의 아들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벧후 2: 15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24:24)"는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그 분을 믿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까지도 미혹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여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 마귀의 이러한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주인 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분의 백성으로서 그 분의 말씀을 따르리라는 결단입니

다. 세 번째는 그 분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음으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살 것인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그 두 가지 결론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불뱀에 물려있지만 아직 그래도 놋뱀을 쳐다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